



# “사회 약자들의恨 풀어주고 싶었어요”

영화 ‘골든슬럼버’ 건우 역 강동원

“저도 평범한 사람... 일반인에 위로 주고파  
판단은 관객 몫이지만 제 스스로 합격점”

아무리 살을 찌우고 뽀글뽀글 ‘아줌마 파마’를 해도 강동원(37)은 역시 강동원이다. 빛나는 외모를 숨길 수 없다. 그렇다고 그가 외모에 갇혀있는 것은 아니다. 시기군(‘김사외전’), 아이 감성을 지닌 20대 청년(‘가려진 시간’), 정의감 넘치는 경찰(‘마스터’), 독재 타도를 외치는 대학생(‘1987’)까지 매 작품 장르와 캐릭터를 넘나들며 변신했다.

오는 14일 개봉하는 ‘골든슬럼버’에서도 그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성이 착하다착한 평범한 택배 기사 건우역으로, 거대권력에 의해 유력 대선 후보의 암살범으로 몰려 쫓기는 인물이다.

12일 서울 삼청동에서 만난 강동원은 영화 속 건우와 실제 자신의 모습과는 비슷한 면이 많다고 했다.

“저는 진짜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눈두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연탄을 때면서 살았죠. 대학 시절에는 서울로 상경해서 기숙사와 하숙집을 전전했고, 연기자로 데뷔하고 나서도 사무실에서 지내다가 그 뒤 조금씩 삶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는 귀공자 같은 외모 때문에 종종 여러 오해를 받는다. 그는 “무엇보다 ‘부자집 아들’이라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억울해했다.

또 몇 년 전 JTBC ‘뉴스룸’ 출연 직후 그의 인간미에 대해 반응이 뜨거웠던 것을 언급하며 “대중들이 그동안 저

를 차가운 사람으로 봐주신 것 같아 오히려 슬펐다”면서 “그날 고등학교 친구들과 단둘이서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떠올렸다.

그는 “살면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항상 손해 보는 쪽을 선택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골든슬럼버’는 강동원이 원톱 주연인 영화다. 그가 극을 오롯이 이끌어가는 이번 작품이 처음이다. 그는 7년 전 일본 이사가 코타로의 동명 소설을 읽고 감명받아 영화를 먼저 제안했다. “이야기의 흐름을 한국적으로 빠르게, 흥미롭게 전개하면 재미있을 것 같았죠.”

무엇보다 원작의 결말에 대한 갈증이 컸다. 한국 작품은 원작과 큰 틀은 같으면서도 결말은 다르다. “권력에 부딪혀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해결하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그런 결말을 보기 힘들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몇십 년이 지나서야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 최근에는 당사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무죄로 풀려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1987’에서 이한열 열사를 연기한 데 이어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작품을 연이어 선택했다. 그는 “연기자는 결국 영화 속에서 인간에 관해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동원은 극 중 달리고 또 달린다. 광화문 세종로 한복판에서부터 좁은 골목길까지 가리지 않는다. 죽은 쥐와 오물이 떠나고 악취가 풍기는 지하 배수로에서도 뛰어다녔다. 평소 68kg를 유지하던 몸무게를 76kg까지 불리고, 헤어스타일도 파마로 바꿨다.

그는 “단조로운 캐릭터이지만, 단조롭지 않게 만들고 노력했다”면서 “최종 판단은 관객의 몫이지만, 저 스스로는 연기에 합격점을 주고 싶다”며 웃었다.

강동원은 최근 몇 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다. 현재는 김지운 감독의 신작 ‘인랑’을 촬영 중이다. 3월부터는 할리우드 영화 ‘쓰나미 LA’ 촬영을 위해 유럽으로 떠난다. ‘쓰나미 LA’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쓰나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덮친다는 설정의 재난 영화다. ‘콘 에어’, ‘톨 레이터’ 등을 연출한 사이먼 웨스트 감독의 신작이다. 강동원은 수족관에서 일하는 서퍼 역을 맡아서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한다. 수준급 영어 실력을 지닌 강동원은 모든 대사를 영어로 소화한다.

그는 “앞으로 몇 년간은 율해보다 더 바빠질 것 같다”면서 “관객들을 배반해서는 안 되지만, 관객이 기대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관객의 기대치와 새로운 모습을 적절히 소화하며 다양한 배역을 맡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 “당일 급하게 연락받고 출연했어요”

소녀시대 서현, 북 예술단과 깜짝 공연

소녀시대 서현(본명 서주현·27·사진 오른쪽)의 북한 예술단 공연 합류가 공연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의 에이전시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연 당일 급하게 청와대로부터 연락받고 참여한 것이라며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갑자기 연락받고 무대에 오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서현은 지난 11일 오후 7시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 피날레에서 북한 가수들과 ‘다시 만나다’와 ‘우리의 소원’을 함께 불러 기립 박수를 받았다. 서현은 ‘우리의 소원’을 부른 뒤 북한 예술단원과 포옹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춘추관장인 권혁기 평창동계올림픽 정부합동지원단 부단장은 “관객 중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고려해 인지도가 높은 가수 중에서 섭외했고, 짧은 기간 연습을 같이할 가수 대상자 중 서현 씨 측에서 흔쾌히 응해 출연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현은 공연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영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만나는 자리에 참석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현 측은 “서현은 무대 참여자로서 잠시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개그맨 김영철 “가수하면 안되나용?”

신곡 ‘안되나용’ 17일 공개...가수 휘성 뮤비 출연

개그맨 김영철이 ‘따르릉’, ‘크리스마스 별거 없어’의 인기로 힘입어 신곡 ‘안되나용’을 오는 17일 공개한다.

김영철의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12일 “‘안되나용’은 일렉트로닉과 트로트를 결합한 신나는 노래”라고 소개했다.

신곡은 JTBC 예능 ‘아는 형남’의 ‘아형 뮤비(뮤직비디오) 대전’ 특집에서 소개된 노래다. 김영철은 방송에서 가수 휘성과 짝을 지어 이번 곡을 녹음했다.

뮤직비디오 연출은 ‘김생민의 영수증’, ‘셀럽라이브’ 등 신선한 기획으로 주목받는 개그우먼 송은이가 맡았다. 뮤직비디오에는 농구선수 출신 서장훈 등이 출연했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웃음농 평창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생방송 아침이 좋다	30 여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10 TV 소설 파도야 파도야 50 여기는 평창 <[스노보드] 여자하프파이프결 [알파인스키] 남자 복합>	30 930 MBC 뉴스 45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	10 평창 2018 <스노보드/컬링>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	00 평창동계올림픽 특집다큐 <고려인 데니스 톨의 올림픽> (재) 50 팔도방송 스페셜	40 여기는 평창 <[알파인스키] 남자 복합 11 : 30 - 13 : 10>	3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55 TV 속의 TV	30 SBS 뉴스 40 평창 2018 <알파인스키/스노보드>
12	00 KBS 뉴스 12 40 UHD 한식의 마음(재) 50 평창올림픽 라이브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예선>		55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예선>	
1		10 세상의 모든 다큐		
2	50 평창올림픽 라이브 <알파인스키, 남자 알파인복합>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10 SBS 뉴스특보
3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프리파라 3 30 헬로킴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10 불타는 청춘(재)
4	30 평창올림픽 라이브 <스노보드/크로스컨트리>	00 행복찬 지도 30 1대 100(재)	00 앙코르 MBC 스페셜 <G-1, 2018 평창의 꿈>	10 접속! 무비월드(재)
5		35 닥터 하우스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생방송 빛날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 뉴스
6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40 여기는 평창 <쇼트트랙/스피드 스케이팅>	30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스피드 스케이팅>	00 평창 2018 <쇼트트랙/스피드 스케이팅>
7	00 KBS 뉴스 7 35 요리인류-서울의 맛			
8	25 미워도 사랑해			
9	00 KBS 뉴스 9 40 헬링다큐 나무야 나무야 시즌3		45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10	30 숨터 35 설특선 독립영화관 <길>	00 라디오 로맨스	30 다시 만나는 하얀탑 UHD	25 KBC 8 뉴스 45 불타는 청춘 1~2부
11			40 평창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평창, 우리의 밤	
12	05 KBS 뉴스 15 평창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20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하키드림 기적의 1승을 향해>		35 평창 투나잇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장수의 비밀(재) <안면도 노부부의 (우간다 르완다 르투레일 습지)>
06:00 한국기행(재)	10:3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삼색나물>
07:00 김철수방대 파이아로보	11:20 세계테마기행(재)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00 EBS 정오 뉴스
07:45 총동행 슈퍼윙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크
08:00 덩동덩 유치원1~2	12:40 세상의 모든 범죄(재)
08:30 플라워링 하트	12:45 메디컬 다크-7요일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성년 물고기(재)
09:00 몬카트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09:15 소피 루비	15:00 우주탐험가 젯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9:50 극한직업
15:30 오도트, 이상한 아이들	20:40 다큐오늘
15:45 부릉부릉! 부루미즈	<바람 많은 제주 삶이>
16:00 엄마 깨투리	20:50 세계테마기행
16:15 투다다쿵	<영혼의 팔레트 고펠레라 2부 모험가의 낙원>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1:30 한국기행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겨울, 남도를 '맛'나다 2부 새벽, 찬바람 시러도>
17:30 호기심 소녀 도트	21:50 EBS 다크프라이
17:45 띠띠뽀 띠띠뽀	22:45 글로벌 아홉 님이 삼만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1~4	23:35 메디컬 다크-7요일
19:00 몬카트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24:30 한국영화특선 <바람의 파이터>
19:30 EBS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3일(음 12월 28일 丙子)
<b>子</b>	48년생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 60년생 문제를 푸는 열쇠가 보인다. 72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84년생 시작적으로 쉽게 현혹될 수도 있으나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도 확인하라. 행운의 숫자 : 51, 49	<b>午</b>
<b>丑</b>	49년생 일체 재고의 여지가 없으니 집착을 버리는 것이 맞다. 61년생 공연의 편곡을 이끌만한 찬스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다. 73년생 상투적인 일에서 탈바꿈할 수 있는 파격이 필요하다. 85년생 절만 활용한다면 대박난다. 행운의 숫자 : 98, 94	<b>未</b>
<b>寅</b>	50년생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실행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리라. 62년생 요행수는 꿈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꼭 이행해야 한다. 86년생 길사는 별로 없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행운의 숫자 : 72, 18	<b>申</b>
<b>卯</b>	51년생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처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번거롭다. 63년생 고동의 끝에 달콤한 열매가 보인다. 75년생 확실한 자기 주관과 결연한 의지가 요망된다. 87년생 여기저기 두루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14, 62	<b>酉</b>
<b>辰</b>	52년생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떠한 화도 비켜가는 법이 없다. 64년생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76년생 번거롭더라도 남을 시키려 하지 말고 직접 행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88년생 정도를 길으면 해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1, 92	<b>戌</b>
<b>巳</b>	53년생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면 결실이 있을 것이다. 65년생 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77년생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임해야 비전이 보인다. 89년생 낯선 이와 상면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68	<b>亥</b>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